

“함박꽃 미소짓는 엄마”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진료 부분

<현병력>

- 2011. 01. 대장암 진단, 내시경하 점막 절제술
- 2012. 08. 복막전이 확인, 복수 동반
- 2012. 09. 항암치료 실시
- 2013. 03. 항암치료 반응평가를 위한 CT 촬영 시 압 진행 소견, 난소 전이 동반
- 2013. 04. 전자궁 절제술과 양측 부속기 절제술, 장막 절제술 시행
- 2013. 05. 항암치료 실시
- 2014. 02. 항암치료 반응평가를 위한 CT 촬영 시 압 진행 소견, 복수 증가
- 2014. 04. 샘물호스피스 입원함
- 2014. 05.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함

<주호소에 따른 진료과정>

#1. 복수

(주호소)

- 2012년 영상검사에서도 소량의 복수 관찰됨.
- 복수 양 계속 늘며 수 개월 전부터는 이에 의한 불편감 심하여 국립암센터, 샘물호스피스에서 치료 받는 기간 중 간헐적인 복수 천자 시행해 왔음.
- 복수에 의한 복부 팽만감, 약간의 호흡곤란 호소함.

(치료과정)

- 복수 천자 시 일시적인 증세 완화는 가능하나 전신 컨디션 저하, 혈압 저하 등 부작용 있을 수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주지시키고, 환자의 임상 증세를 토대로 복수천자시행하기로 함.
- 환자 증세에 기반하여 수시로 소량씩 천자 위해

복강내 피그테일 카테터 유치함.

- 이와 함께 알부민 병용 투여하여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 예방.

#2. 복부 팽만감, 소화장애

(주호소)

- 이전에는 어느 정도 식사 가능하였으나, 입원기간 중 식사 시 복부불편감 호소하며 식사량 점차 줄어들었음.
- 20병일째부터는 구역/구토 증세 동반됨.

(치료과정)

- 복막전이와 다량의 복수로 인한 장운동 장애로 복부 팽만감/소화장애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
- 경구 약제 섭취는 불가능하여, 관장 및 좌약 투여하였고, 복부 팽만감 다소 호전됨.
- 기타 증세 호전위한 주사 약제 투여하였고, 복부 팽만감 다소 호전됨.
-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여 구역/구토 심할 경우 금식 유지하기로 함.
- 영양 공급을 위한 다량의 수액 투여는 복수와 하지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 컨디션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액요법 시행함.

#3. 하지부종

(주호소)

- 수개월 전부터 점차 하지부종 발생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도 점차 심해짐.

(치료과정)

- 다발성 전이로 인한 신체 조절능력 저하로 인한

중세임을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함.

- 발 마사지, 수면시 하지 거상등에 대해 해당 증세 경감.

#3. 병세 악화에 대한 불안감

(주호소)

- 수 년간 치료 받으면서 병세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옴.
- 암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감에 샘물호스피스에서 대학병원인 부천성모병원에

로 전원을 결심하였음.

- 전원하였으나, 암 자체에 대한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 일간 불안함 호소.

(치료과정)

- 환자/보호자와 면담 시행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함.
- 호스피스 팀원이 수시로 말벗 함께 하며 고립감, 불안감을 완화시킴.

간호 부분

<일반정보>

- 성명: 채○○
- 성별: F/46세
- 진단명: Colon ca, ovary meta, peritoneal seeding
- 병식: 있음
- 결혼상태: 기혼. 아들 둘 있음
- 종교: 무교
- 병전성격: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다.

<환자사정>

- 의식정도: 명료
- 활동정도: ECOG 3점
- v/s: 140/70-96-12-36.8
- 식이형태: 입원당시 고형식 가능했으나 현재 구토 증상으로 인해 물~죽 정도 드시는 상태이며 의도적으로 복수와 부종으로 식이 제한을 하고 있음.
- 소화기계: 소화불량 및 구토 증상 존재함.
- 배설/배변: 변비 (최근 배변일: 2014. 5.28)
- 호흡기계: 복수로 인한 가슴 답답함 경미하게 존재함 (RR: 12회/min)
- 통증양상: 복부로 인한 답답함(NRS 6-7점) Rt. leg 둔한 통증(NRS 5-6점)
- 감정상태: 입원 당시 두려움과 불안등으로 다른 환우와 가족분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며 특히 4인용 병실의 환자와 가족의 소리

에 수면장애로 힘들어 했으나 호스피스 팀과 신뢰 관계 형성 후 변화 되었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스스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현재 상황을 이겨냄. “최근들어 누군가 옆에 없으면 불안하다. 갈 때가 되었나봐요.” 하시며 가족과 지인의 방문을 기다림. 호스피스 병동 퇴원 후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나 통증과 복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수면하지 못하여 1박2일 응급실 재입원함.

- 영적요구: 없음 “죽고 난 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가 없어서 그런가봐요.”

<심리사회적 사정>

- 직장: ○○국장직까지 오르며 일에 몰입하고 살았다.
- 가정: 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때 직장 다니느라 돌보지 못했다. “남은 아이들이 제일 걱정된다. 아직 어린데... 남편도 걱정되어요.”
- 친정: 대구에서 부모님이 농사일로 자녀 넷을 모두 대학 이상 공부시킴. 언니 뇌종양으로 2년전 사망. 여동생이 일본 유학까지 다녀와서 아이 키우느라 집에 있는 것과 경제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걸 안타까워함. 막내 남동생은 대학교수니까 걱정 없어 함.

<간호진단>

복부 팽만과 관련된 통증

(사정)

- 복수로 인한 복부 팽만
- 복부 팽만으로 인한 가슴 답답함을 호소함.
- 오른쪽 다리 둔한 통증 호소함.
- NRS : 6-7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불편해요.”

“배가 부르니까 다리도 둔하게 아파요.”

(중재)

- 몰핀 20mg+5DW500 으로 수액 20cc/hr 투약 유지
- 통증이 심할시 바로 알리도록 하고 인정하고 수용해 주고 통증 발생 시 prn) 몰핀 3mg iv 투약함.
- 통증의 심리적 원인과 악화요인을 사정하고 통증 치료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
- 스테로이드 2.5mg IV QD 투약중임
- 컨디션에 따라 pig tail 로 1L/일까지 배액함.(350~500cc 배액)

(평가)

- NRS: 2-3
- “진통제 맞으면 증상이 완화되요.”
- 통증 조절이 잘 되어 편안하다고 표현함
- 환자 질병에 대한 이해도 높음

신체기능 및 자아기능 약화와 관련된 절망감

(사정)

- “이제 못 먹어 굶어 죽는구나.”
- “걷는 것도 기운이 없어요.”
- “제가 없으면 남은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예요.”
-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되어 스스로 원망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재)

- 신뢰적 관계 유지로 근심, 걱정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함.
- 행동 변화를 위한 점진적 단기 목표의 계획을 세움 (예로 퇴원 후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생신 잔치, 재입원 후 호스피스팀과 함께 하는 이벤트 생신잔치, 가족사진촬영).

- 퇴원 후 가족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음.
- 산책, 말벗 등을 함께하여 마음의 근심을 완화시킴.
- 남편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함.

(평가)

- 친구분들, 가족분들 방문 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밝은 모습 보임.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정아야 사랑해’하고 표현해요.” “짧고 굵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파도 제가 있는 것이 가족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 불안감 감소되고 자존감 유지되어 요법 치료에 적극 참여함.

의미있는 대상 상실과 관련된 비효율적 가족대처

(사정)

- 이별과정에 대한 마음의 준비에 대해 막막해함. 남편과의 대화 중, “아이들이 표현은 안해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 “저도 아이들 먹는 것 챙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 “저도 우리 큰 아이처럼 1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것이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상실되는 거잖아요. 막막해요.”

(중재)

- 남편의 아버지에 대한 사별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함.
- 음악요법 및 원예, 미술 요법을 통해 마음 표현하기.
- 남편과 환자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적인 마음 읽어주기.
- 호스피스팀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이벤트로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평가)

- 환자는 남편에게 긍정적인 표현과 사랑을 표현하려 노력함.
- 남편이 생일날 선물한 48송이의 장미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음.
- 자녀들은 자주 환자에게 방문하여 함께 있어주며 사랑을 표현하려 노력함.

사회복지 부분

<일반정보>

주소: 인천시 계양구

주거 형태: 자가

결혼상태: 기혼(슬하2남)

직업: 前 정수기 코디네이터 사무직

의료보장: 건강보험

개입일: 2014.05.08 ~ 현재 진행 중

<개인력>

- 대구 출생, 인천 거주, 대졸, 기혼(슬하2남), 무직, 무교
- 자존심 강하며 외향적인 성격으로 활발한 대인관계 형성해왔음.
- 진단 후 치료받으면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족들에게 표현하였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밝혀왔음. 타 호스피스 시설 입원 당시 치료에 소극적인 의료진 태도에 대해 불만 표현함. 본인 호스피스병동 입원 시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적극적인 치료에 대해 욕구 표현함.
- 최근 주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책임지는 남편과 여동생에게 예민한 모습과 짜증을 많이 냈음.

<가족력>

1. 父母

- 현재 환자의 질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음.
- 과거 첫째 딸이 뇌종양으로 사망할 당시 높은 우울감 호소하였고 딸 사망 이후 충격으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겪어왔음.

2. 형제 (언니, 여동생, 남동생)

- 언니는 2010년경 뇌종양으로 사망함.
- 여동생은 주 4회 이상 병실 방문하며 환자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음.
- 남동생은 대구 거주하고 있어 잦은 병실 방문의 어려움 있음.

3. 남편 (50세)

- 인천 거주, 기혼, 자영업, 주 보호자 및 의사결정자

- 환자의 간병을 전적으로 책임져 수행하였으나 최근 예민해진 환자와 잦은 갈등 발생하였고 경제적 문제 심화되어 유료 간병인 연계 고려하고 있음.
- 환자의 역할 부재로 인해 자녀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높이 걱정하고 미안함 가지고 있음. 또한 자녀 양육 및 근로활동으로 인해 과도한 책임감과 어려움 호소하며 눈물 보임.
- 환자가 질환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료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음.

4. 첫째 아들 (19세)

-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 감정 표현에 서툰 모습 보임.
- 2011년경 환자 진단 받은 이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출, 흡연, 음주 등을 하며 방황하는 모습 보임.

5. 둘째 아들 (17세)

- 섬세하고 여린 성격, 환자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잦은 눈물 보이고 있으며 상위권 대학 진학을 통해 환자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함.

<문제 사정>

심리사회적 측면

1. 환자 및 가족들이 겪는 질환 수용 및 임종준비의 어려움
 - 상기 환자는 평소 자존심 강하며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질환에 대해 수용하고 원만한 임종준비를 수행하는데 어려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자녀들이 환자(母)의 부재로 겪어온 심리적 불안함.
 - 환자는 암 진단 이후 치료로 인해 자녀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시간이 매우 많았고 자녀들 또한 환자(母)의 부재로 인해 내재된 심리적 불안감을 방황하는 모습을 통해 표출해 온 것으로 사료됨.

<개입 계획>

심리사회적 측면

1. 다학제간 접근 통한 질환 및 죽음 수용 유도
 - 의료진, 사회복지사, 원목자, 자원봉사자가 다학제간 환자 접근을 통해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입증 준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임.
2. 자녀들과의 상담 통한 감정 환기 및 정서적지지
 - 자녀들과 개별 상담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및 감정에 대해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감정 환기가 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계획임.

<개입>

1. 환자 및 가족들이 겪는 질환 수용 및 입증 준비의 어려움
 - 환자와 가족이 직접 의료진과 면담할 수 있도록 유도.
 - 요법(미술,원예) 참여를 통해 심리적 안정 도모하고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 약 4회 프로그램 참여 이후 미술 치료 시 자신을 '나비'로 표현하고 앞으로 날아다니며 가족들을 돌보고 싶어요."라고 표현함.
2. 자녀들이 환자(母)의 부재로 겪어온 심리적 불안함
 - 상담 시 어려움 탐색과 감정 나눔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 해소

- 환자와 함께 하고 싶은 wish list(여행가기, 가족사진 찍기) 작성 후 이를 통해 감정환기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함.
- 05.30 환자와 외출 다녀옴, 06.02 가족사진 촬영 시행함.

<종결 및 개입결과>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적 상담을 독려하였고, 병실 방문, 요법 참여 독려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입원 직후 치료에만 관심을 가졌던 모습과는 달리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요법 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입원 생활 중 의료진,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며 삶을 정리해 가는 모습을 보임. 자녀들의 경우 현재 주어진 시간과 앞으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지 제공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불안감 완화될 수 있도록 함.

<향후 계획>

- 사별가족 모임 안내 및 참여 독려

원목 부분

<방문배경>

호스피스 환자로 입원하셔서 정서적 지지를 부탁 받음.

<관찰>

첫 만남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대는 의자에 앉아 있었음. 외모는 키가 크고 날씬하며 잘생긴 얼굴의 중년쯤 되는 여인으로 보임. 몸은 복수가 많이 차서 힘들어 보였지만 인사를 하자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인사를 받음.

<방문 - 대화록>

원: 안녕하세요. 제가 몇 번 방문 왔었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환: 그러셨어요.

원: 오늘은 좀 어떠세요?

환: 다리가 아파요.
(옆에서 간병인이 계속 다리를 주물러 주고 있었음)

원: 주사는 맞으셨어요.

환: 조금 전에 맞았는데 아직도 통증이 느껴지네요.

원: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요.

환: 그렇겠지요.

원: 자매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환: 글썄요. (잠시 생각하더니...) 제가 열심히 일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런 것 같아요.

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도 될까요?

환: 영업을 했어요. 잘 나갈 때는 상도 많이 받고 유명한 분들의 집에도 가기도 했지요.

원: 그때 참 행복하셨어요?

환: 네. 돈도 잘 벌었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 점들이 아쉽지만 아이들도 제가 일할 때 좋아한 것 같아요.

원: 어떤 면에서요?

환: 내가 상을 받아오면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들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덕분에 운택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원: 그랬었군요. 혹시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 예전에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여기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원: 정말요? 무엇을 해보고 싶으세요?

환: 봉사요. 저는 이제까지 봉사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환: 여기 오시는 자원 봉사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감동 했어요. 자신의 바쁜 시간을 내어 오셔서 정성껏 봉사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옛날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함께 봉사를 갔었지만 그 때는 잘 몰랐어요. 이분들처럼 하는 봉사는 아니었어요.

원: 아 그렇게 느끼셨어요.

환: 저도 건강만 허락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원: 건강이 문제이지요.

환: 그렇죠. 제가 지금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어요?

원: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기도 봉사지요.

환: 저는 종교가 없어서 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기도하실 수 있지요.

간: 그래요. 00님 대세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수녀님에게 해달라고 해요.

(옆에 있던 간병인이 강요함)

환: (아무 대답이 없음)

원: 자매님, 강요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부담가지지 마세요. 언제든지 자매님 마음이 원하면 말씀해주세요.

환: 네. 그럴게요. 수녀님, 감사합니다.

<사목적 분석>

방문시간을 통하여 자기 삶에 행복한 순간들과 아쉬운 점들을 돌아볼 수는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고 싶었으며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의미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현실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격정되는 아이들을 그분께 맞길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노력하였다

<신학적 성찰>

원목자로서의 함정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이기 보다는 오히려 환자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과 친정어머니는 개신교로 입교 시키려는 원의가 있다. 천주교 병원에서 받고 있는 배려가 많이 있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원목자가 방문하려고 했을 때 많은 경우 피하려는 경우를 경험하였고 또한 간병인도 이것을 확인해 주었다. 환자에게 어떠한 부담 없이 본인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자원봉사 부분

환자분의 첫 인상은 늘씬한 키에 바짝 마른 몸, 만삭이 된 듯 한 배의 모습으로 힘겨워 보였다. 대구가 고향인 환자분은 약간의 사투리가 섞인 다정한 말씨

였고 함박꽃 같은 미소로 맞이 해주었다.

환자분은 1남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으며 형제들이 모두 인물이 좋고 머리도 좋아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지만 본인은 인물도 공부도 뒤떨어져서 집안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학창시절에도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4년 전 언니가 뇌종양 진단을 받고 임종을 해서 환자분도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 0기 진단을 받았고 1년 후에 재발을 해서 30번이나 항암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피부도 검은색으로 변하고 난소로 전이되어 복수를 하루라도 빼지 않으면 무척 불편감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만남을 가졌으며 봉사자들은 발 마사지, 목욕, 미용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환자는 남편의 착한 성격에 불만과 서운함을 가진 듯 했습니다. 착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큰 아들은 똑똑하고 표현을 잘하지만 작은 아들은 다정하고 딸처럼 엄마를 늘 위로해주는 아들이라면서 엄마를 닮아 아들이 키가 크고 운동도 잘한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환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도 잦은 만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들은 환자의 음식 솜씨에 대해 자주 칭찬하곤 했습니다.

환자는 결혼 후에 직장 생활을 했으며, 프로영업 사원으로 회사에서 무척이나 인정을 받았고 외국여행도 여러 번 다녀올 만큼 능력 있는 사원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직원들이 환자분을 좋아했고 병원에 입원 후에도 자주 찾아오는 직원도 있고 매일 아침마다 죽을 끓여 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 나는 일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욕을 하고 마사지 받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으며, 미식가라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가끔 직장 친구와 한강에 나가서 폭죽도 터트리고 유람선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며 추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가족여행을 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하였습니다. 이에 호스피스팀은 가족여행을 기획했으나 환자의 컨디션 저하로 여행 대신, 집으로 외출을 다녀왔습니다.

외출 시, 가족들과 생일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외출 전 다리 통증이 심해서 걱정을 했으나 봉사자의 전신마사지로 환자분은 기분 좋게 외출 준비를 했고 배웅하는 우리에게 25년이나 타고 다닌 자가용을 소개 해주면서 본인이 운전하고 멀리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차를 타고 창문너머로 손을 흔들어 주는 환자분의 마지막 외출이 가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차마 본인의 병을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무사히 생일잔치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고, 가족사진도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찍을 수 있었습니다.

호스피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옆 침대의 환자분들이 고통스런 모습이나 통증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임종방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환자 또한 무척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보다 많이 마르고 걸음도 걸을 수 없고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공포가 들기도 하여 간병인에게 옆에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매일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혼자만의 우울한 시간은 힘이 든다고 했고 남은 날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던 중 기력 저하로 대화를 지속하는데 힘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봉사자인 나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서로 좋은 친구가 돼서 함께 하자” 약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아이들과 남편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아이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따뜻한 말들이 힘과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환자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느냐고 이야기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